

법계 살림 살이가 '부처님 설법'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설할만한 법이 없음을 설법이라 이름 한다."고 하셨다.

충만한 법계 살림살이가 부처님의 설법을 대변하고 있다. 진정한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법신자리에서 현연히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이어서, 눈뜬 입장에서 따로 설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따로 설해야 설법이 줄 알기에, 따로 모습을 빌려서 설법하는 모양을 쓰기도 한다. 아무리 그림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입을 열지라도, 결국 그것이 또 다른 그림자를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법신자리에서 화현되어진 일체 모든 그림자는 다 법을 설하는 모습임을 알아서, 일체저일체시에 부처님을 보고 불공드릴 줄 안다.

보신이나 화신은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설하는 법 또한 상황에 따라서 근기에 대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두는 참다운 법이 아니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며,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고 하신 것이다.

처음에는 방편으로 삼신을 보이면서 믿음을 내게 한 다음, 보신이나 화신은 참다운 실상이 아님을 밝히면서 오직 법신 도리만을 긍정한다. 하지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한 것도 어쩔 수 없이 근사치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성품의 바다에서 어떤 변화도 비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릴 때, 법신이 가리키는 바를 볼 수 있다.

이른바 하나의 일정명(一精明)이 나뉘어 6화합(六和合)이 된다고 하였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6화합이라고 한다. 6근이 하나로 이어졌다가, 어리석으면 여섯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알면 둘 아닌 성품 자리에서 중심을 잡지만, 모르면 쪼개진 여섯을 자기 집으로 삼아 자기도 모르게 생사를 반복하며 윤회할 뿐이다.

일정명이라 바로 한 마음(一心)이요, 6화합이란 6근(六根)이다. 이 6근은 각기 6전(六塵)과 합한다.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각각 합한다. 그런 가운데 6식(六識)을 내어 18계(十八界)가 된다.

알고 보면 청정법신의 인연에 의해 합성된 그림자가 18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공한 것이다. 일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그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있다. 원인과 결과를 만들기 이전의 참다운 실상이 어떤 것인지 자각할 때, 일정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8>



범어사 주지

'부처님 설법' 청정법신 자리서

현연히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 눈뜬 입장선 일체저 일체시에 부처님께 불공 드릴 줄 안다

일정명(한마음)과 6화합

알음알이로 이해하면

법에 속박돼 제할 못하고

깨달았다는 상에 빠진다

공부될수록 겸손해지게 마련

계합하여 성품을 깨닫는

사람은 즉시 부처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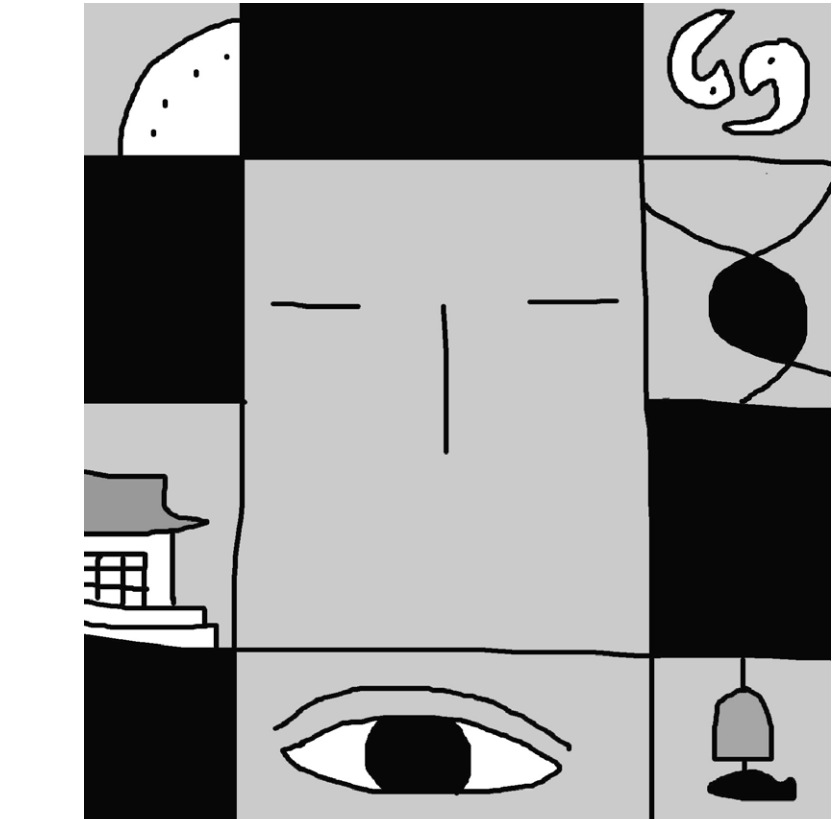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만약 이 18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6화합이 하나로 묶이어서 일정명이 된다. 일정명이란 곧 마음이다. 그런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알면서도, 일정명과 6화합에 대해 알음알이로 이해해서 마침내 법에 속박되어 본래 마음과 제할하지 못한다.

이치만 따지면서 분별하는 사람은 교리는 이해했어도 계합이 안 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배우고 이해한 것만으로 깨달았다는 상에 빠져 있다. 한 생각 돌이켜서 상없는 도리를 밝히면, '상'과 '상 아님'을 동시에 보아 험뎌져지지 않는다.

여러개서는 세간에 나타나서 일승(一乘)의 참된 법을 설하셨지만, 중생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6년 고행과 45년간의 심 없는 설법을 찬탄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며 스스로를 고통의 바다에 빠뜨리는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모양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증삼만을 지어서도 안 된다. 참다운 공부인이라면, 공부가 될수록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겸손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설법이 인색한 분이 된다. 이는 중생을 위하여 널리 묘법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방편을 세워 삼승(三乘)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일승 도리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할 수 없이 차별된 근기에 맞추어 삼승을 열어 보인 것이다. 단계 별로 각각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통해서, 일승 묘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방편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방편이 생겼고, 깨달음에도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되었으나, 이것은 모두 근본법이 아니다.

깨달음 자체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기 따라 우열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깨달으면, 최상승까지도 쓸어버리고 유아독존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도리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보지 않고서는, 이 말을 소화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승의 도가 있을 뿐, 나머지 이승은 참된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 그러나 마침내는 '일심법(一心法)'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을 불러 법외를 함께 하여 따로 언설(言說)을 떠난 '한 마음'을 부촉하셨다.

부처님과 가섭은 서로 주고받았지만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귀신도 이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직접 깨달았을 때, 비로소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일맥의 법령은 따로 행해지는데, 만약 계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즉시 불지(佛地)에 이른다.

성품을 깨닫는 즉시 바로 부처라는 말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함께 돈 걱정만 하고 있네

<무량수경>

<무량수경>의 재발견

다시 "무량수경"을 읽으면서 놀란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여러 번 "무량수경"을 읽어보았지만 큰 감흥이 없었다. 특히 하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왜 상권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권이 있는가. 법장보살의 마흔 여덟가지 원을 말하는 상권만으로도 "무량수경"은 끝나도 되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내게 "무량수경"은 별로 다가오지 않았다. "관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은 1권 분량인데, 2권이나 되는 "무량수경"은 그저 반쪽이나 중언부언이 심한 것으로만 생각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무량수경"의 하권이 갖는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다시 정독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 "무량수경" 하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무량수경" 상권이 담고 있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하권의 내용 역시 짧게 요약되어서 "관무량수경" 속으로 들어간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무량수경" 하권은 그렇게 요약만 하고 말아서는 그 결이 다 살아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관무량수경"이 요점 제시라면, "무량수경"은 심층 묘사이다.

"세간사(世間之事)"의 심층 묘사

어찌된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무량수경"은 극락에 왕생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경전이므로, 극락에 관한 이야기로 잠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그 정반대의 측면 역시 갖고 있다. 이 세상 이야기를 시시콜콜 질질하게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근기가 없고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시급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지극히 악한 일을 저지르고 괴로운 일을 부지런히 몸을 돌려서 처리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려 애 쓴다. 존귀한 이나 비천한 이나 상관없이, 가난한 이나 부유한 이나 상관없이, 젊은 이든 어르신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함께 돈 걱정만 하고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골몰하는 것은 한가지로 같다."

내가 다소 의역을 했다. 이 부분은 직역

보다는 의역을 해야 제 맛이 나리라 생각해서이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세상일이 언급된다. 그리고 그러한 세간사에 얽매어서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극락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중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량수경"의 구성, 즉 상권과 하권의 역할분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이상향으로서 극락을 제시한다. 그런 뒤에, 그러한 극락을 가도록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하여 이 사바세계의 일을 제시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바세계의 삶이 괴롭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괴롭지 않다면, 좋을 것이다. 극락



그림 · 박구원

을 원하지 않아도, 극락을 꿈꾸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쩌까? 실로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사람이라도 있거나 할까? 단언하건대, 없다. "천석꾼은 천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충족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바세계를 싫어하면서 떠나려 하고(열리에토/厭離穢土), 정토세계는 가까이 구한다(欣求淨土)"라는 겐신(源愼)스님의 말은, 극락에 왕생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명언이다. 이 역시 "무량수경" 하권의 열리에토를 먼저 제시하고, 상권의 흔구정토를 나중에 말한 것이다. "무량수경"에 대한 절묘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없다면 굳이 극락을 꿈꾸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모두 극락을 염원하는, 염원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불교저널에서 경력기사를 채용합니다

인터넷 언론매체 불교저널이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관형 대판의 신문을 창간합니다. 이에 경력기사를 아래와 같이 널리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	제출서류
경력 기자	약간명	취재경력 1년 이상인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응시기한** 2013년 5월 24일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82번지 불교저널편집실
- 이메일접수** buddhismjournal@daum.net
- 문의** 문의 : 02)720-6630

모십니다

소승은 서을 동대문구에 소재한 고해사 주지도정입니다. 소승은 禪大韓佛敎 曹溪宗 종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에 함께 종단 운영에 동참하실 원로대덕 큰스님과 도심및 초야에 소속없이 홀로계신 모든스님께 밖으로는 불구정도 구현과 안으로는 친목및 내부 결속을 다져 부처님 법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 많은 지도편달 바라옵고 뜻있는 모든스님 대환영하며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959-1825, 010-3114-1825 사전에 전화로 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최초 부처님이 모셔진 곳! 선대 환불교조계종 **꿈고 解해 寺** 예비모임일: 2013년 양5월 30일 오후 3시

- *종단운영및 불교사업 토론
- *예비모임에 참석하신 스님위주로 운영됩니다
- *종단에 가입하실 스님 접수도 받습니다 (사찰등록증, 임명장, 종단회원증, 운영지침 드립니다) (무속인, 철학원, 명상수련원, 기공원, 심의 후 가능)
- *도심속기도도량 고해사에서 함께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바로 사용하는 秘傳 실전 구 성 학

•단기7일 완성 •속성2~3일 완성! (지방속식가능) 많이 사용되고있으며 포교용으로 적합 교육 후 바로 실전가능! 안되면 될때까지! 공부와진검승부의장,실전구성학까페준비중! 년1~2회 최고권위자 세미나 개최 준비중! 아주 배우기 쉽고 간단하고 실전에 강합니다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겹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이들거늘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드러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게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마음이 우리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기시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 퍼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송월스님음력 / 신국번행판 / 584쪽 / 정가 2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제 1편: 부처의 생애 제 2편: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sakyamuni Buddha)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어왔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신비의 호흡요법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 어느때 보다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히말라야의 영원한 스승 마비자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올바른 호흡을 제시하고 인간의 우주적 역할과 영원한 존재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상과 요가의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불교저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